<h1>나 혼자만 레벨업-27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q68080626b6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27화</p>  
<p>보스였던 거미야 진우 혼자서 잡았으니 다른 보스들도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.</p>  
<p>하지만 입구로 몰려왔던 벌레 떼 속에서 두 사람만 있다고 가정하면 숨이 콱 막혀 왔다.</p>  
<p>"..."</p>  
<p>할 말을 잃어버린 유진호 앞에서 진우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'그래도 이 방법이 최고다.'</p>  
<p>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.</p>  
<p>E급 헌터의 몸으로 개인 공격대에 들어가기는 매우 힘들었다.</p>  
<p>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한 첫날부터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.</p>  
<p>던전에 개인 자격으로 가는 걸 포기하거나, 스스로 자기 공격대를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.</p>  
<p>그런데 고맙게도 알아서 공격대를 만들어 주겠단다.</p>  
<p>이건 기회가 아닌가?</p>  
<p>"하, 하지만 형님! C급 게이트에 들어가려면 멤버가 최소 열 명은 되어야."</p>  
<p>"머릿수만 채워도 일당을 주겠다고 하면 지원자가 아주 줄을 설걸?"</p>  
<p>황동석에게 배운 방법을 응용하는 거다.</p>  
<p>목숨 걸고 싸우기는 싫고, 돈이 급한 헌터가 있다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터였다.</p>  
<p>유진호는 질렸다는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"설마... 던전의 몬스터들부터 보스까지 저희 둘이 다 잡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겠죠?"</p>  
<p>정확히는 혼자서 다 잡을 생각이지만.</p>  
<p>"잘 아네."</p>  
<p>그렇게 하면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경험치 손실을 막을 수 있고, 옆에 있는 놈이라곤 유진호 하나가 다일 테니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어진다.</p>  
<p>'그러면 폭렙을 할 수 있다.'</p>  
<p>거기에 모든 레이드가 끝나면 보너스로 훌륭한 건물까지 굴러 떨어지니 그야말로 일석이조.</p>  
<p>이제 유진호를 설득시키는 일만 남았다.</p>  
<p>예상대로 유진호는 잔뜩 겁을 먹었다.</p>  
<p>"그, 그래도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, 형님?"</p>  
<p>"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네."</p>  
<p>"예?"</p>  
<p>진우가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자 유진호가 몸을 기울였다.</p>  
<p>"우리 말고 아무도 사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, 바꿔 말하면 우리만 멀쩡하면 아무도 안 다친다는 거지?"</p>  
<p>"그, 그렇겠죠."</p>  
<p>"첫 번째 레이드는 너도 꼽사리 끼어서 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가 터졌다고 해도, 네가 만든 공대 팀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19번의 레이드를 무사히 끝낸다고 생각해 봐."</p>  
<p>유진호의 눈이 번쩍 뜨였다.</p>  
<p>과연...!</p>  
<p>그렇게만 된다면 아버지를 설득하기가 한결 더 쉬워질 수 있었다.</p>  
<p>D급 헌터라는 이력에 19번 무사고 공대장이라는 경력이 더해지는 거다.</p>  
<p>길드 마스터로서의 자질이 입증되는 것이다.</p>  
<p>최고의 광고 효과가 아닐 수 없다.</p>  
<p>진우는 유진호의 표정을 보면서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'이 녀석... 넘어왔다.'</p>  
<p>어디까지나 간절한 사람은 유진호였다.</p>  
<p>진우야 굳이 유진호와 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협회의 연락이나 랜덤 박스 보상을 통해 던전에 갈 수 있었다.</p>  
<p>한편 유진호는 생각했다.</p>  
<p>조금 무섭기는 해도 진우 말대로 성공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.</p>  
<p>저번 레이드에서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 줬던 진우의 모습을 떠올리면 크게 불안할 것도 없었다.</p>  
<p>유진호가 간신히 결단을 내렸다.</p>  
<p>"그렇게 하시죠, 형님. 팀원들은 제가 모아 보겠습니다."</p>  
<p>"좋다.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서로의 이해가 일치했다.</p>  
<p>진우 앞이라 줄곧 가슴을 졸이고 있던 유진호가 그제야 환한 표정으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.</p>  
<p>'겨우 형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.'</p>  
<p>이제 남은 레이드가 무섭지 않다.</p>  
<p>진우라는 든든한 아군이 합류했고, 공격대를 만들기도 훨씬 쉬워졌다.</p>  
<p>진우가 내건 조건이면 공격대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줄을 설 테니.</p>  
<p>'이걸로 마스터에 한 걸음 다가선 거다.'</p>  
<p>진우도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'혼자 C급 던전을 싹쓸이하고 빠르게 레벨을 올린다.'</p>  
<p>두 사람 다 만족한 얼굴로 카페를 나왔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진우는 유진호를 보낸 뒤 집까지 뛰어서 왔다.</p>  
<p>협회에서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.</p>  
<p>병원을 나온 지 10일이 넘었으니 근처에서 언제 게이트가 열려도 이상하지 않다.</p>  
<p>보통 한 달에 2,3번은 주변 게이트 정리를 위해 헌터들을 소집했던 협회다.</p>  
<p>유진호에게 딱 1시간만 내주겠다고 했던 이유도 언제 올지 모르는 협회의 전화 때문이었다.</p>  
<p>'지금은 E급 던전 하나도 아쉬우니...'</p>  
<p>마수를 잡아서 얼른 레벨을 올리고 싶었다.</p>  
<p>폰이 없는 게 이렇게 불편할 줄이야.</p>  
<p>다행히 며칠 뒤에는 헌터 폰이 도착한다고 하지만.</p>  
<p>진우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.</p>  
<p>'...'</p>  
<p>집은 조용했다.</p>  
<p>평일이라 동생은 학교에 있었다.</p>  
<p>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진우는 곧장 일일 퀘스트 창을 열었다.</p>  
<p>'오늘 보상을 받아야지.'</p>  
<p>유진호를 만나기 전에 벌써 일일 퀘스트를 끝냈었다. 그런데 보는 눈이 많아 일단 보상을 미루어 뒀다.</p>  
<p>갑자기 푸른빛이 몸을 휘감고, 선물 상자가 튀어나오는 장면을 길가에서 보여 줄 순 없는 노릇 아닌가.</p>  
<p>띠링!</p>  
<p>[팔굽혀 펴기 100회 : 완료 (100/100)]</p>  
<p>[윗몸 일으키기 100회 : 완료 (100/100)]</p>  
<p>[스쿼트 100회 : 완료 (100/100)]</p>  
<p>[달리기 10km : 완료 (11/10)]</p>  
<p>[일일 퀘스트: 강자가 되기 위한 준비]를 완료하셨습니다.</p>  
<p>[완료 보상이 도착하였습니다.]</p>  
<p>[보상을 확인하시겠습니까?] (Y/N)</p>  
<p>"예... 아니, 아니."</p>  
<p>습관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던 진우가 뭔가를 발견하고 급하게 말을 멈추었다.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달리기 항목에 고정됐다.</p>  
<p>[달리기 10km : 완료 (11/10)]</p>  
<p>처음엔 단순히 1킬로가 더 오버됐구나, 하는 생각이었다.</p>  
<p>하지만 생각할수록 이상했다.</p>  
<p>'왜 목표치를 다 채웠는데도 오버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지?'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예리해졌다.</p>  
<p>이게 과연 우연일까?</p>  
<p>바닥에 엎드린 후 팔을 직선으로 뻗었다.</p>  
<p>진우의 상체가 쉴 새 없이 내려갔다 올라왔다.</p>  
<p>하지만 시선은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다.</p>  
<p>띠링!</p>  
<p>[팔굽혀 펴기 1회를 성공하셨습니다.]</p>  
<p>[팔굽혀 펴기 100회 : 완료 (111/100)]</p>  
<p>띠링!</p>  
<p>[팔굽혀 펴기 1회를 성공하셨습니다.]</p>  
<p>[팔굽혀 펴기 100회 : 완료 (112/100)]</p>  
<p>'역시...'</p>  
<p>달리기만 오버 수치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었다.</p>  
<p>팔굽혀 펴기 또한 계속해서 숫자가 올라갔다.</p>  
<p>문득 숫자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.</p>  
<p>진우의 팔에 힘줄이 솟아났다.</p>  
<p>올라간 능력치 덕분에 체중은 느껴지지 않았다.</p>  
<p>몸이 솜털처럼 가벼웠다.</p>  
<p>백 근처였던 숫자가 순식간에 2백으로 변했다.</p>  
<p>띠링!</p>  
<p>[팔굽혀 펴기 1회를 성공하셨습니다.]</p>  
<p>[팔굽혀 펴기 100회 : 완료 (200/100)]</p>  
<p>띠링!</p>  
<p>[팔굽혀 펴기 1회를 성공하셨습니다.]</p>  
<p>[팔굽혀 펴기 100회 : 완료 (200/100)]</p>  
<p>숫자는 정확히 2백에서 멈추었다.</p>  
<p>몇 번을 더 시도해 봤으나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았다.</p>  
<p>윗몸 일으키기도, 스쿼트도 모두 2백 개가 한계였다.</p>  
<p>[팔굽혀 펴기 100회 : 완료 (200/100)]</p>  
<p>[윗몸 일으키기 100회 : 완료 (200/100)]</p>  
<p>[스쿼트 100회 : 완료 (200/100)]</p>  
<p>[달리기 10km : 완료 (11/10)]</p>  
<p>더도 덜도 아닌 2백.</p>  
<p>무한정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, 아예 백에서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.</p>  
<p>이건 뭔가가 있다.</p>  
<p>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.</p>  
<p>어쩌면 오버 수치를 다 채웠을 때 뭔가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?</p>  
<p>'확인해 보자.'</p>  
<p>진우는 어느 때보다 빠른 걸음으로 집을 빠져나갔다.</p>  
<p>달리기 9킬로는 금방 채워졌다.</p>  
<p>진우가 다시 집 앞에 섰을 때 메시지가 떴다.</p>  
<p>띠링!</p>  
<p>[히든 퀘스트: 강자가 되기 위한 준비]를 완료하셨습니다.</p>  
<p>[완료 보상이 도착하였습니다.]</p>  
<p>[보상을 확인하시겠습니까?] (Y/N)</p>  
<p>퀘스트의 제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퀘스트 종류가 히든 퀘스트로 바뀌어 있었다.</p>  
<p>짐작은 맞았다.</p>  
<p>진우는 침을 꿀꺽 삼켰다.</p>  
<p>'...확인.'</p>  
<p>띠링!</p>  
<p>[아래와 같은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]</p>  
<p>보상 1. 상태 회복</p>  
<p>보상 2. 모든 스탯 포인트 +3</p>  
<p>보상 3.</p>  
<p>1)축복받은 랜덤 박스 (선택)</p>  
<p>2)저주받은 랜덤 박스 (선택)</p>  
<p>[전부 수락하시겠습니까?]</p>  
<p>'모든 스탯 3포인트 증가!'</p>  
<p>눈이 번쩍 뜨였다.</p>  
<p>히든 퀘스트답게 보상이 아주 화끈했다.</p>  
<p>모든 스탯에 3포인트 추가라면 3레벨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였다.</p>  
<p>아니, 능력치는 올랐는데 레벨이 오르지 않았으니 오히려 더 이득이었다.</p>  
<p>올라간 능력치만큼 레벨을 올리기가 더 쉬워질 테니 말이다. 동시에 아쉬운 마음도 들었다.</p>  
<p>어쩌면 앞으로 받는 일일 퀘스트를 전부 히든 퀘스트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,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.</p>  
<p>'하지만 이렇게 보상이 크다면...'</p>  
<p>당연히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다.</p>  
<p>그리고 만약 정말로 히든 퀘스트가 이번 딱 한 번뿐이라면 보상 3에서는 보다 신중해져야만 했다.</p>  
<p>보상 3.</p>  
<p>1)축복받은 랜덤 박스 (선택)</p>  
<p>2)저주받은 랜덤 박스 (선택)</p>  
<p>처음으로 나온 선택 보상이니까.</p>  
<p>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잃는다.</p>  
<p>'두 개 중 하나는 영원히 볼 수 없단 말이겠지?'</p>  
<p>일단 이름만 보면 뭘 선택해야 할지 뻔하기는 한데.</p>  
<p>의외로 그게 함정일지도 몰랐다.</p>  
<p>"보상 3 수락."</p>  
<p>띠링!</p>  
<p>[두 개의 랜덤 박스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.]</p>  
<p>[축복받은 랜덤 박스]</p>  
<p>'플레이어'에게 원하는 아이템을 제공합니다.</p>  
<p>[저주받은 랜덤 박스]</p>  
<p>'플레이어'에게 필요한 아이템을 제공합니다.</p>  
<p>[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?]</p>  
<p>설명은 심플했다.</p>  
<p>그래서 더 선택이 어려웠다.</p>  
<p>아마 설명이 없었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축복받은 쪽을 골랐을 거다.</p>  
<p>하지만 설명을 읽고 나니 둘 중 어느 것을 골라도 다른 하나가 아쉬울 듯했다.</p>  
<p>'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라...'</p>  
<p>얼핏 듣기엔 둘 다 좋은 것처럼 들린다.</p>  
<p>'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다.'</p>  
<p>'원하는 것'은 분명 필요성을 인지하여 원하는 것이다. 하지만 '필요한 것'은 그렇지 않다. 필요하지만 원하지 않는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다.</p>  
<p>예를 들면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을 포함한 일대를 전부 날려 버릴 끔찍한 폭탄이 나온다든가.</p>  
<p>'그래서 저주받은 랜덤 박스겠지.'</p>  
<p>보다 적은 리스크를 택한다.</p>  
<p>선택의 결과를 알 수 없을 때는 그 편이 그나마 후회를 남기지 않는 법이었다.</p>  
<p>냉철한 고민 끝에 진우가 결정을 내렸다.</p>  
<p>"축복받은 랜덤 박스."</p>  
<p>발아래 작은 상자가 스르르 나타났다.</p>  
<p>진우는 상자를 주워 들었다.</p>  
<p>'설마...?'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